

광산구, 체험과 풍류로 가득한 ‘10월 알리요투어’

10월 17·24일 두 차례 역사문화투어 운영

선비복·양궁 체험부터 전시·국악 공연까지 풍성

양궁 체험부터 국악 공연까지 광
산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만나
는 가을 여행이 펼쳐진다.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광산의 역사·문화 명소를 둘러보고 다채로운 체험까지 즐기는 '광산 알리요투어' 10월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산 알리요투어'는 버스를 타고 광산구의 주요 명소와 관광자원을 주제별로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10월 투어는 가을을 맞아 광산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투어'를 17일과 24일 두 차례 운영한다. 17일에는 '전통의 멋과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가을 감성 투어'를 주제로 월봉서원, 동국꽃재장거리, 호가정, 고려인마을, 김봉호가옥을 둘러본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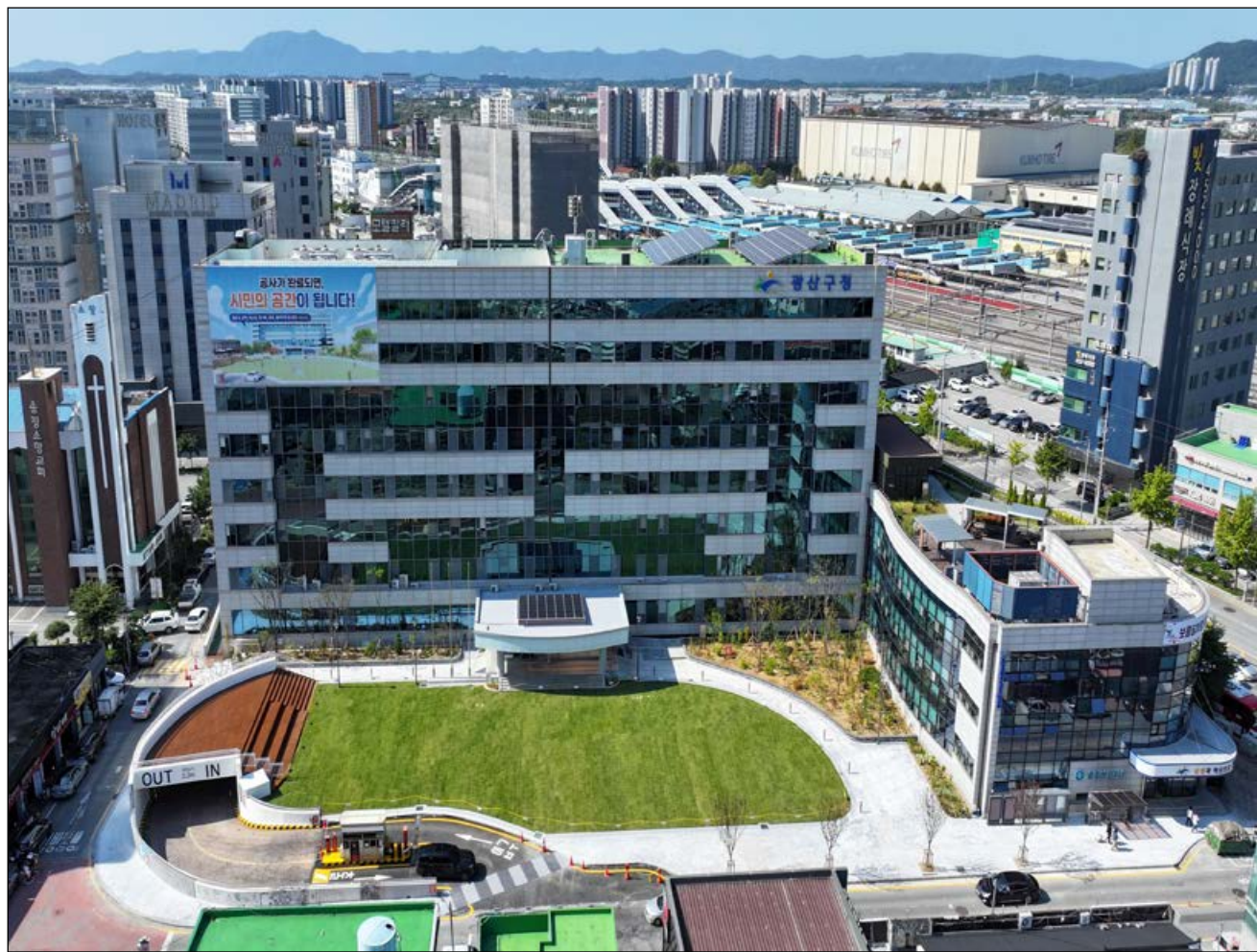
을빛이 내려앉은 월봉서원에서는
현악기와 나무액자 만들기, 나만의
도장·부채 캘리그래피 만들기, 전통
선비복 체험 등을 즐긴다.

이어 극락강을 품은 호가정에서 옛 선비의 풍류를 느끼고, 고려민마울과 광복 직후 건립된 김봉호가옥을 둘러보며 광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다. 24일에는 '양궁 체험부터 문학·풍류까지 즐기는 오감 광산 투어'가 펼쳐진다. 광주여대 양궁클럽에서 직접 활시위를 당겨보는 체험을 시작으로, 동곡무지엄에서는 전문 해설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특별전시를 관람한다.

이어 월계동 장고분과 무양서원 등을 둘러보고, 풍영정에서 국악공연을 감상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신청기간은 투어 전날 오후 6시
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10월 투어
참가 신청은光山 평생학습포털 ‘
배우랑께’와 ‘오이’ 앱에서 온라인으
로 접수하면 된다.

투어별 세부일정과 신청 방법은 광산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9월에는 광산의 역사·문화 명소와 지역 축제를 연계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보였다”라며 “10월에도 양곡, 전지·공원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고려인마을과 용아생가, 황룡강생태정원 등을 둘러보고 광산뮤지엄(ON)페스티벌까지 연계한 ‘뮤페투어’를 운영했다. /김정관 기자



/광주 광산구청 제공

남구, '사회적 참사 추모·기억' 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 제정 추진, 올해 연말 공포 예정

희생자 아픔 공유·생명존중 가치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4·16 세월호참사와 10·29 이태원참사, 12·29 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그 아픔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남구는 6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참사의 교훈

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참사의 정의를 비롯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모 공간 운영, 추모·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남구는 조례안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또 이달 말쯤 법제심사를 의뢰, 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올해 연말께 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남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들

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사회적 참사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며,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는 동시에 그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지역사회 차원

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남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추모와 기억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모 공간과 관련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참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모 사업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 남구청 제공

